

「주간 북한경제 동향」은  
한주간의 주요기사를 정리  
하여, 북한 경제의 실상을  
이해하고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www.dprkinvest.org

# 주간 북한경제 동향

## Weekly DPRK Business Review

2009년 8월 3일(월)  
통권51호(제2권 제29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 907호

발행처 :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전 화 02-782-2677  
팩 스 02-3452-2312  
이 메 일 master@dprkinvest.org

북한투자전략연구소 기획시리즈

연속기획 『북녘 산책』

### 연속기획 「북녘 산책」 《I-2. 함경북도(경제)》



<지도출처:nkchosun.com>

함경북도의 경제는 크게 공업, 수산업, 농업의 세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공업에 있어서 함경북도는 주로 기간공업이 집중되어 발달된 지역으로 청진시를 중심으로 나진선봉특급시, 부령군, 회령시에 걸쳐 있는 청진공업지구와 김책시를 중심으로 길주군 그리고 함경남도 단천시를 포함하는 김책공업지구가 있다. 청진과 김책 두 공업지구를 중심으로 한 함경북도의 주요공업부분은 채취, 전력, 금속, 기계, 화학, 건재공업 등 중공업과 경공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흑색금속공업(제철)에서는 북한 최대의 제철소인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 성진제강련합기업소, 청진제강소 등에서 선철과 강철, 강판을 비롯한 강재들이 생산된다. 이 밖의 금속공장들에서는 철과 특수강, 합금강, 합금철 등이 생산되고 있다.

기계공업은 주로 청진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는데, 함북조선소련합기업소에서는 '왕재산'호와 '염분진'호를 비롯하여 큰 화물선과 냉장운반선, 3,750톤급의 저인망 어선 같은 큰 배를 만들고 있다. 또한, 청진철도공장, 청진빠스공장, 청진공장기계공장 등의 기계공장에서는 철도, 자동차, 여객 등의 운수 설비와 각종 공업기계와 농기계 등이 생산되고 있다. 청진보다 규모는 작지만, 김책과 길주, 라남과 회령일대에도 기계공업이 발달되어 각종 기계설비가 생산된다.

지질구성이 다양한 함경북도는 많은 종류의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매장량 10억톤에 연간 생산능력이 800만톤에 달하는 북한 최대 철생산지이자 세계적인 노천광산인 무산광산련합기업소가 있다. 석탄 또한 풍부해서 학포, 고참 탄광 등 수십여개의 탄광에서 석탄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시멘트생산에 많이 쓰이는 석회석, 도자기원료로 이용되는 고령토, 인회석, 운모, 니켈, 흑연 등이 생산된다.

함경북도는 가공공업의 비중이 높고 수많은 공장과 탄광들을 가

지고 있어 다른 도에 비하여 전력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 그래서 3월17일발전소, 부령발전소와 청진화력발전소 같은 대형발전시설과 신동발전소, 송흥발전소 등의 수많은 중소형발전소들을 가지고 있다.

화학공업은 청진, 라남, 은덕, 화성, 길주를 중심으로 발달되었는데 화학섬유, 의약품, 메타놀, 포르말린, 합성수지 등을 생산하고 있다. 1949년에 설립되어 6·25 당시 전시의약품을 생산하기도 했던 라남제약공장이 현재는 초고압설비, 실험반응로를 비롯한 최신 화학설비들과 각종 분석설비들을 갖추고 합성, 식물화학, 발효, 소독, 비타민 등의 가공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김책시 마천령일대에는 풍부한 대리석과 섬록암을 채취하여 대리석판과 섬록암가공품, 합주석 등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나는 대리석은 김책시의 특산물로 알려져있다. 우리가 북한 자료 화면에서 많이 접하는 체제선전용 문구를 기록해 놓은 기념비 등이 주로 이곳의 대리석으로 만들어 진다.

도의 경공업은 식료가공업을 중심으로 발달했는데, 청진시에만 10여개의 식료공장이 있고, 도 전체에는 60여개의 식료공장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회령시의 백살구가공품이 유명하다. 또한, 경성의 도자기는 국내 뿐 만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함경북도는 7개의 시, 군이 바다에 면하여 있어 수산업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류와 난류가 철에 따라 번갈아 흘러 명태, 청어, 가자미, 미역, 다시마 등 풍부한 수산자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산물가공업이 발달하였는데, 가장 유명한 곳이 김책이다.

북한에서는 소금이 아직도 귀한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다. 1년에 1~2회에 걸쳐 각 가구당 소금을 배급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장마당에서 식량과 함께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품목 중 하나라고 한다. 그래서 최근 소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어랑군에 640 정보 크기의 어대진염전을 신설하였다. 하지만, 이도 공업용 위주로 공급되고 있어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농업부분은 경지면적이 도 넓이의 10%정도로 적고, 연평균기온이 6.4℃로 낮고, 안개가 많이 끼고 서리가 일찍 내리는 등의 좋지 못한 자연조건으로 활발하지는 못하다. 경지면적 가운데 논은 18%, 밭은 71%, 과일밭은 9%를 차지한다. 강냉이, 벼, 콩, 감자 등을 주로 재배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재배하는 것이 강냉이이다. 겨울이 길고 농업에 불리한 자연조건 때문에 청진남새온실 등과 같이 온실을 만들어 채소 등을 생산하고 있다.

함경북도의 2009년 현재 인구는 215만 6000명으로 북한 전체 인구의 약 10%가 살고 있다. 농경문화에 불리한 자연조건, 역사적 이유 등으로 인해 인구가 적은 지역이었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단 후 산업화 과정에서 기간산업위주의 경제시설이 들어서면서 현재의 인구에 이르게 되었다.

다음호에서는 '희망의 땅' 이라고도 불리는 라선특급시·경제무역지대를 소개한다.

## 제51호 목 차

### 이주의 칼럼

이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 2

### 이주의 주요 기사

北, 배우자 1순위 요건은 OO -----	3
北 함흥 휴양지에 "세계적 규모" 마천호텔 준공 -----	4
美, 北 양자대화 사실상 거절 -----	5
WFP "식량 운송비, 北정부 유입은 과장됐다" -----	6
北, 우리 측 선박 예인...남북관계 기상도? -----	7
北 첫 패스트푸드점, 지점 개설계획 밝혀 -----	8
北, '광물수출' 단천향 현대화에 박차 -----	9
평양화장품, 한방 함유 주름방지 제품 출시 -----	10
Mobile Phone Users in North Korea Increasing -----	11
露外交官「北朝鮮の『対話したい』は積極的なシグナル」 -----	12
<b>함께 보는 최근 북한단신 /</b> -----	12
<b>추천논문 / 북·중간 광물성생산물 무역과 북한의 선군경제건설론 ---</b>	13
<b>퀴즈로 풀어가는 北! /</b> -----	13

### 이 주의 북한 관련 행사

- 2009 서울대학교미술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공동주최 통일 포스터 공모
- ▶대주제 : “분단과 통일의 역사”
- ▶부주제 1 : 분단의 기억
- ▶부주제 2 : 화해의 기록
- ▶부주제 3 : 평화와 생애의 통일 미래
- ▶응모방법 : 3개의 부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작.
- ▶응모자격 : 고등학생 및 일반인
- ▶응모기간 : 7월 27일(월) ~ 8월 14일(금)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서울대학교미술관
- ※시상 등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홈페이지 <http://tongil.snu.ac.kr/>를 참조하세요.

### 이 주의 칼럼

## 이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김영운 ((사)남북물류포럼회장)

필자가 요즘 들어 비로소 크게 깨달은 것이 있다.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천진난만했던 생각에 큰 자괴감이 든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2008년 2월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나는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이 지난 정부의 그것과 비교하여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 정부가 “실용”이라는 것을 내걸었기 때문에 ‘대북 관계에서 우리한테 손해나는 것을 구태여 하겠는가’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그의 대북 정책에 대한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한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고,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그의 대북 관계 비전을 들었을 때만 해도 내가 가진 희망은 오히려 더 커졌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일어났지만, 국회 개원연설에서 그래도 남북관계를 이어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내심 큰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얼마 있지 않아 대통령의 남북관계에 대한 정리된 청사진이 나올 줄 알았다. 적어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기우였고 착각이었다.

대통령의 대북관이 직접 내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은 2008년 12월 31일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였다. 그 때 대통령의 말은 비수보다 더 차가웠다. 대통령은 “더는 무엇을 북한에 줘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대북관계를 종래 해오던 방식으로 끌고 가서는 안된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목표가 되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했다. 섬뜩했다. “아 우리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이렇게 까지 생각하시는구나” 생각했다. 그러나 그래도 당시 대통령의 말이 남북관계를 올바른 궤도 위에 올려놓기 위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놀란 가슴을 부여잡을 수 있었다. 왜냐 하면 대통령이 남북관계가 북한에 무엇을 주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만 했을 뿐, 다른 주장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반년. 대통령이 의미하는 올바른 남북관계는 아직도 그 실체를 알

수 없다. 올바른 남북관계를 위한 정책수립은 없고 대북한 압박만이 존재하고 있는 느낌이다. 하기사 대통령의 생각이 남북관계를 결정짓는 상황에서 그 어떤 다른 정책도 큰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임은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강한 대북 압박정책이 목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대통령의 지난 G-8 정상회담차 방문한 스웨덴에서의 언급이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것은 이렇게 해서 북한을 대화로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을 대화로 나오게 하기 위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말에서 대북한 대화와 협력보다는 북한을 굴종시키겠다는 마음을 먼저 읽는다. 북한이 우리의 말을 듣게 해야 한다는 힘과 자신감이 느껴진다. 그러나 힘이 동반되어 갈등이 평화롭게 해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갈등을 해결하려는 힘은 상대의 힘을 불러 오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남북관계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에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야 내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 질테니까.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그와 같은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궁금해진다. 그것은 다름 아닌 대북한 우월감 때문일 것이다. 북한에 대한 한없는 우월감. 있는 자의 없는 자에 대한 무시, 오만, 독선, 끝이 없는 우월감.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야 하고, 잘못을 때려서라도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나 강한 압박정책은 그 뒤에 반드시 대안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정책이 통하지 않을 경우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위험하다. 우리에게 과연 그런 대안이 있기로 하고 한지. 대안 없는 위험 속으로만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이 글의 원문은 <http://www.kolofo.org/>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 北 개인, 기업에 금융제재

-- 7월 27일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사상 두 번째 금융 제재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UN) 안전 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5명의 북한 인사와 5개 북한 기업, 기관에 대한 금융 및 관련 제재를 29일부터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재 대상 북한 인사는 윤호진 남천강 무역회사 간부, 리제선 조선원자력 총국장, 황석하 조선원자력 총국 간부, 리홍섭 전 영변 원자력 연구소 소장, 한유로 조선용악산총 무역회사 간부다.

제재 대상 기업 및 기관은 남천강 무역, 조선 원자력 총국, 홍콩 일레트로닉스, 조선혁신 무역회사, 조선 단군무역 회사다.

이들은 북한 핵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거나 핵확산 금융거래 및 WMD(대량살상무기) 관련 거래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으나, 남측과는 거래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제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로써 사상 처음으로 대북 제재 대상에 북한 정부 인사들이 포함됐다. 또 지난 4월 단천 상업은행 등 3곳의 북한 기업과 은행에 대한 해외 자산 동결조치에 이어 이번에 5개가 추가됨으로써 모두 8개 북한 기업 및 기관이 제재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북한 인사와 기업 및 단체를 금융제재 대상으로 정하고 이를 관계기관과 각 외국환은행에 통보해 우리 국민, 기업, 단체 등과 제재대상자 간 외환거래 지급 및 영수를 제한할 계획이다.

北, 배우자 1순위 요건은 00

-- 7월 27일 헤럴드경제

북한의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은 상대방의 '학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상하이에서 발행되는 신민만보(新民晚報)는 지난 5월과 이달 초 북한 관광을 다녀온 상하이 민간 관광객들의 말을 인용 "북한의 젊은이들은 남녀 공히 배우자의 요건으로 학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며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이 대학 졸업 여부"라고 보도했다.

중국 관광객들은 북한의 통역이나 관광 안내원 등을 통해 들은 얘기라며 이렇게 귀띔한 뒤 "남성은 여성의 외모와 가정상황을, 여성은 상대가 노동당원인지와 외모를 배우자 선택의 다음 조건으로 꼽았다"고 전했다.

북한에서 경제 문제를 배우자 선택의 고려 대상으로 중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북한 통역원들은 "11년 무료 교육에 대학 학비는 물론 주택과 의료비도 모두 국가에서 대주기때문에 돈은 큰 문제가 안된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이어 하루 8시간, 일주일에 6일 간의 '공작 임무'를 완성하면 성인 기준 하루 700g의 양식이 배급된다고 전한 뒤 "사상 강국이어서 우리에게 돈은 중요하지 않

다"며 "월급이 적긴 하지만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다"고 강조했다.

교통 경찰 80%가 여성인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소개한 중국 관광단은 "거리에는 동평과 지에팡 등 중국산 차들이 혼했고 벤츠도 가끔 볼 수 있었지만 한국이나 미국차량은 없었다"며 "질서가 정연하고 거리가 깨끗해 아주 못 산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DDos 대란' 61개국 서버 확인 '北은 없네'

-- 7월 27일 경향신문

지난 7일부터 나흘간 청와대·국가정보원 등 국가 주요 기관을 상대로 지속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에는 악성코드 유포자의 추적이 어렵도록 해외 61개국의 서버가 대거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수사 3주일이 지나도록 북한 관련 흔적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DDoS 공격 명령을 수행한 좀비PC를 감염시킨 악성코드는 부산 소재 웹하드 공유 사이트와 서울 소재 웹하드 공유 사이트로부터 유포됐다. 해커는 이들 사이트를 해킹한 뒤 이용자가 사이트에 접속할 때 자동으로 내려받는 '업데이트 파일'을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악성코드를 유포시켰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좀비PC는 61개국 432대로 구성된 4개 서버군으로부터 각각 조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DDoS 공격의 치밀한 구조와 유포지 등이 밝혀졌지만 당초 DDoS 공격 직후 국정원이 발표한 '북한 소행 추정' 흔적은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서버의 접속 기록, 해킹 흔적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북한과 관련한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다"며 "쉽사리 북한 관련 여부를 판단하거나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北 '양자대화' vs 美 '6자회담' 신경전

-- 7월 28일 노컷뉴스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대화는 6자회담 틀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혀 북한이 관심을 표명한 양자대화 제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열려있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지만 그것은 6자회담과 다자회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켈리 대변인은 특히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무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북한이 지켜야 할 의무는 그들이 합의한 공동성명에 명시돼 있다"고 말하고 "그들이 이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한다면 우리는 6자회담의 맥락에서 북한과 만나 양자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켈리 대변인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의 구체적 조치와 약속 이행이며, 이후 6자회담 틀 안에서의 대화를 통

해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은 6자회담 불참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 주 신선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를 통해 "미국과의 대화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고, 북한 외무성도 전날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 방식은 따로 있다"고 북미간의 직접 대화를 주장했다.

이처럼 북미 양측이 대화의 형식과 명분을 놓고 '양자대화'와 '6자회담'으로 맞서면서 북미간 대화가 재개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논의가 뒤따를 전망이다.

프랑스 NGO, 다음 달 북한 간척지 복구 완료

-- 7월 28일 노컷뉴스

프랑스의 국제구호단체가 진행 중인 평안남도 서해안의 간척지 복구 사업이 다음 달 말에 모두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의 국제구호단체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의 알렉산더 데보르트 북한 사업 담당관은 "지난 2006년부터 3년 동안 진행해 온 금성 간척지의 복구 공사가 다음달 말 모두 끝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밝혔다.

데보르트 담당관은 "이번 공사로 그동안 관리 소홀과 기술 부족 등으로 쓸모없는 땅이 돼버린 금성 간척지가 농사가 가능한 땅으로 복구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식량 공급에 큰 도움을 주게 됐다"고 말했다.

데보르트 담당관은 "이번 간척지 복구로 금성리 중악노동지구의 농장과 금성지구 농장에 거주하고 있는 7천여 명의 주민들이 다시 일자리를 얻고 식량을 공급 받는 등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됐으며, 14만 명에 이르는 온천군 주민들의 식량난 해소에도 기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성 간척지는 북한이 1994년 약 3천2백 헥타르 규모의 농업 단지를 개척한 곳으로 북한 최대 규모의 간척지이자 가장 최근에 개발한 땅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1995년부터 불어닥친 심각한 경제난으로 방조제 관리를 소홀히 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못해 농사를 짓지 못했다.

북한 당국은 폐허가 된 금성 간척지를 복구하기 위해 지난 2005년 황해북도 은율군의 서해안 간척지를 성공적으로 복구한 경험이 있는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에 지원을 요청했고,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는 유럽연합과 스웨덴 정부로부터 필요한 자금 2백1만 유로를 지원받아 이번 사업을 진행했다.

北 함흥 휴양지에 "세계적 규모" 마전호텔 준공

-- 7월 28일 중앙일보

북한 함경남도 함흥시의 명승지인 마전유원지에 현대적 시설을 갖춘 "세계적 규모"의 마전호텔이 새로 건설돼 27일 준공식이 열렸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28일 보도했다.

이 호텔은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침실들과 식당, 실내 물놀이장, 한증간, 목욕탕 등 문화후생시설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꾸러지고 해수욕장까지 갖춰져" 있다고 방송은 소개해 북한식 리조트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은 "군인 건설자들"이 "혁명적 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해 방대한 건설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냈다고 강조했다. 호텔과 부대시설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함흥시 교외에 있는 마전유원지는 299만3천700㎡의 부지에 기존 건물로 연건평 3천800여㎡인 16동의 휴양각과 13동의 공공건물, 해수욕장, 보트장 등을 갖추고 있고 서흥소년단 야영소와 마전관광휴양소가 있는 북한 동해안의 대표적 휴양지로 알려졌다.

통일부 "北초청장 접수되면 방북 허용"

-- 7월 28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5월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중단됐던 대북지원 개인 및 민간단체의 방북을 사실상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을 위한 개인 및 민간단체의 방북은 북측의 초청장만 있으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이날 경기도 파주시 소재 북한이탈주민 고용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인도적 지원 단체의 방북을 제한해온 정부의 방침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군사·안보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은 계속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제한해온 민간 대북지원 단체의 방북을 허용하고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축구협회, 2022 WC 유치계획서 제출... '남북 공동개최 추진'

-- 7월 28일 뉴시스

대한축구협회가 2022년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유치를 위해 '남북 공동개최 추진'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오후 "2022 월드컵 유치를 위한 국제대회 개최계획서 및 타당성조사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및 대한체육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는 2022년 월드컵 유치에 대한 정부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로, 국제대회 개최계획서에는 개최 목적과 유치여건을 비롯해 재정, 시설, 인력운영 등 월드컵 유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축구협회는 '국제사회에서 재도약'과 '국민 통합 시너지 효과',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선진국 진입계기 마련', '남북 공동개최 추진으로 세계평화 지향' 등을 월드컵 개최 목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축구협회는 한국 개최가 확정된다면 개폐막식 또는 몇몇 경기를 북한에서 개최하도록 해 남북화해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남북 공동개최 추진'을 목표로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

"북한 휴대전화 가입자 4만 8천명 돌파"

-- 7월 29일 노컷뉴스

북한에서 휴대전화(손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계속 늘

어나 6월 말 현재 가입자 수가 4만 8천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중동 지역 최대 이동통신회사인 이집트의 오라스콤은 최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오라스콤이 75%, 북한이 25%를 투자해 평양에 설립한 '고려링크'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계속 늘어나 지난 6월 말 현재 4만8천 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오라스콤은 "이 같은 수치는 지난 3월 말 현재 1만9천 208명에 비해 약 150%인 2만8천800명이 늘어난 것"이라며 "통화 가능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이 올해 말에 마무리되면 가입자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오라스콤은 "현재 북한에 114개 휴대전화 기지국(BTS)과 1곳의 이동전화 교환국(Switches)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오라스콤은 "평양 시내 2곳의 고려링크 봉사소에서 신규 가입자 접수와 휴대전화 개통, 선불통화카드 판매 등을 하고 있으며 북한의 조선통신회사 3곳에서도 선불통화카드가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라스콤은 "북한에서는 아직 기본적인 음성통화와 문자 서비스만 이뤄지고 있다"면서 "사진 전송과 동영상 통화 등 다른 3세대 서비스는 추후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라스콤은 "고속 무선인터넷 접속을 필요로 하는 북한 내 외국인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인터넷용 고속 패킷 접속(HSPA) 서비스가 곧 개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美, 北 양자대화 사실상 거절

-- 7월 29일 서울신문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의 미국과의 양자대화 제의에 대해 북·미 양자대화는 6자회담 틀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상 북한의 제의를 거절했다.

이언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과의 양자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이지만, 이는 6자회담, 다자 틀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신선호 대사가 미국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북한 외무성이 성명을 통해 6자회담 불참과 북·미간 직접 대화를 사실상 주장한 데 대한 미국 정부의 첫 공식 반응이다.

북·미간에 양자대화 방식을 놓고 입장차가 확연해 대화 재개가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또 북한에 양자대화에 앞서 지난 2005년 9·19공동성명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조치들을 다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도 AFP통신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와 관련, "우리는 6자회담의 틀이 있고, 북한은 이 틀을 통해 비핵화를 재약속하고 그들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의) 담화는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비핵화 회담을 재개하라는 미국 및 국제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6자회담이라는 다자 틀을 고수하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은 6자회담은 더 이상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북·미 대화 재개까지는 난항이 예고된다.

#### 중국, 전략금속 '바나듐' 대북 밀반출 적발

-- 7월 29일 mbc

중국 당국이 북한으로 밀반출되려던 희귀부품을 발견했습니다. 미사일 부품에 쓰이는 원료인데 중국이 전격 압수했다는 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단둥 세관이 지난 24일 북한으로 밀반출되려던 전략적 희귀 금속물질 바나듐 70KG을 적발해 전격 압수했습니다.

단둥 현지 신문인 압록강 만보와 단둥뉴스 등은 국경 세관원들이 북한행 화물차량에 대해 검문 검색을 실시한 결과 과일인 것 처럼 위장한 6개 상자에서 바나듐이 담긴 68개의 유리병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 북한, 한자말대사전 새로 편찬

-- 7월 29일 노컷뉴스

북한 조선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에서 최근 한자말대사전을 새로 편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 연구자들이 리조실록과 팔만대장경 등 수백 종에 달하는 고전문헌 연구분석을 기초로, 30만 8,500여개의 어휘와 60만여 개의 용례들을 선정해 옥편과 사전을 겸비한 한자말대사전을 집필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10권으로 된 이 사전은 조선인민의 언어생활과 민족고전들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수 만개의 한자를 올림자로, 수십만 개의 한자 어휘를 올림말로 선정해 수록했다"고 전했다.

사전에는 부수색인, 획순색인, 음순색인을 주어 올림자와 올림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볼 수 있어 역사학, 민족학 등 각 부문사들을 보다 깊이 있게 연구체계화 할 수 있는 과학적 토대가 확고히 마련됐다고 말했다.

#### 北김정일, 식료품 공급 확대 '특명'

-- 7월 29일 연합뉴스

2012년까지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잡고 있는 북한 당국이 최근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식료가공품의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지역마다 종합적인 식료가공공장을 건설, 모든 식료품의 원료를 '국내산'으로 자체 해결하는 동시에 소규모 공장에서도 간장이나 된장, 기름 등 기초식품부터 국수나 떡, 농토산 가공품, 각종 부식물, 주류에 이르기까지 생산 품종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김정일 위원장이 장거리 로켓 발사 이틀 후인 4월7일 북한군이 직영하는 삼일포특산물공장과 상점을 현지지도한 것이 계기가 됐다.

대동강변에 있는 이 공장은 국수, 떡, 기름, 당과류에서부터 각종 주류, 농토산 가공품, 물고기 가공품을 비롯해 350여가지의 다양한 식료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공장은 자체 생산한 식료품을 판매하는 '삼일포특산물상점'을 운영,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했다.

이에 따라 도별로 식료가공공장 건설이 적극 추진되고

있고, 기존 공장에서도 품종 확대를 위한 기술개선이 분주하다.

조선신보(6.26)는 "현재 국내의 모든 도에서 자기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식료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공장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강원도 원산시에 당창건 기념일인 10월10일을 목표로 송도원식료종합공장을 건설중이라고 소개했다.

내각 차원에서도 지난 14일 평양에서 광범기 부총리, 김봉철 상업상을 비롯해 관계부문 책임자들과 각 지역의 모범 상업·급양 책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상업부문 일꾼회의'를 열고 "삼일포특산물공장의 경험을 따라 배워 주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논의했다.

북한은 식료품 공급확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히 지난 22일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내각에 식료일용공업성을 신설하기도 했다.

북한이 이처럼 식료품 공급 확대에 안간힘을 쏟는 것은 '150일 전투'를 벌이는 등 '강성대국' 달성을 명분으로 주민 노력동원을 극대화하는데도 정작 식량난 등 경제사정이 호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생활과 직결된 식료품 공급을 늘려 실생활의 개선을 체감토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을 다소나마 진정시키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 중관광객, 北핵실험 이후 나진코스 외면

-- 7월 30일 연합뉴스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들 군사 기지와 가까운 북한 나진 관광코스가 중국인 관광객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28일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연지(延吉)의 여행사들에 따르면 여름 방학과 휴가가 시작돼 본격적인 관광시즌에 들어섰지만 연지를 통해 북한 관광에 나서는 중국인이 거의 없어 개점 휴업 상태다.

연변의 한 여행사는 "예년 이맘때면 하루 300~400명 가량이 몰렸는데 요즘은 20명 안팎에 불과하다"며 "북한 관광상품은 이름만 걸여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연지 여행사들이 다루는 북한 관광상품은 나진 일대를 돌아보는 1박2일 코스 하나 뿐으로 가격은 800 위안(14만5천 원)으로 저렴하지만 이렇다 할 볼거리가 없는데다 북한의 핵 실험 기지나 미사일 발사 기지와 멀지 않아 북한의 잇따른 강경 조치에 반감을 느끼고 있는 중국인들이 기피하고 있다.

북한의 핵 실험이 실시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는 연지와 180여km 거리에 불과해 핵 실험 당시 일부 폐교가 무너지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통행증만 있으면 북한행이 가능했던 중전과는 달리 올 1월부터 여권을 소지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진 것도 북한관광을 기피하게 된 원인으로 보인다.

반면 신의주를 거쳐 묘향산과 판문점, 평양, 개성 등을 돌아보는 3박4일 코스의 2천400 위안(약 44만 원) 짜리 북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단둥(丹東)지역 여행사들은 예년과 비

슷한 수준의 관광객이 몰려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단둥의 한 여행사는 "핵 실험 등으로 외부에서 볼 때 북한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만 평양 등 북한 내부에서는 전혀 그런 느낌을 받지 않는다"며 "북한의 대표적인 관광 코스를 돌아보는 상품은 여전히 '미지의 세계'를 찾아 가려는 중국인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 中 철강업체, 유엔 제재 북한기업과 사업 중단

-- 7월 30일 서울신문

중국의 철강업체인 중광(重鋼)그룹이 이달 초 선양 북방중공업(NHI)에 북한 해산의 동광산 개발을 위해 의뢰한 설비 제조의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복수의 중국 철강업계 관계자들이 29일 밝혔다. 중광은 2006년 11월 해산 동광산을 개발기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협약을 체결한 뒤 해산 동광산에 투입할 채광 설비의 제작을 NHI에 의뢰했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에 따라 지난 4월 제재 대상 북한 기업 리스트에 오른 업체다.

#### WFP "식량 운송비, 北정부 유입은 과장됐다"

-- 7월 30일 노컷뉴스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의 예산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운송비의 상당액이 북한 정부에 들어갔다는 일부 보도는 과장된 것이라고 세계식량계획이 밝혔다.

세계식량계획 로마 본부 그레그 배로우 북한담당관은 29일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 63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톤당 206.9달러의 비싼 운송료를 책정했고 이 돈이 북한 정부로 들어갔다는 최근 일부 보도는 과장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말했다.

배로우 북한담당관은 "폭스뉴스가 입수했다는 보고서는 석유와 곡물 가격 그리고 국제 운송비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던 지난해 중순에 당시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만든 일종의 계획 보고서(planning document)일 뿐이며, 약 3개월 후 국제 운송비용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추정치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배로우 북한담당관은 "폭스뉴스가 사용한 톤당 206.9달러는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 1톤당 낸 실제 운송료보다 크게 부풀려진 액수"라면서 "화물 운송 전문가 대부분이 수급하는 수준인 1톤당 미화 35달러에서 40달러 수준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보수적 성향의 뉴스 매체인 폭스뉴스는 지난 27일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지원 보고서를 자체적으로 입수했다면서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1월 31일까지 지원 예산 5억 달러 가운데 1억 3천500만 달러가 운송비로 책정돼 있으며, 이중 상당액이 북한 정부에 흘러들어 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원(PIIE) 마커스 놀랜드 박사도 2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세계식량계획의 대북사업과



관련한 폭스뉴스 보도의 신뢰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놀랜드 박사는 "폭스뉴스가 새로 입수했다는 보고서는 지난해 중순부터 세계식량계획의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계속 올라 있었고 내용을 보면 세계식량계획의 지원 식량 상당량을 책임진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북한에 보낸 식량은 거의 다 미국 내에서 조달해 미국 화물선에 실어 북한의 동해안인 함흥과 청진에 도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를 제외한 일부 지원 식량은 대개 중국의 단둥에서 조달돼 단둥의 물류창고에 보관돼 있다가 중국 소유의 화물열차로 북한에 전달되는 게 일반적인데, 폭스뉴스의 보도는 마치 모든 지원 식량이 일단 중국의 다롄이나 단둥으로 도착해서 북한 선적으로 남포로 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기문 "북-미 직접 대화 지지...북한방문 용의 있다"

-- 7월 30일 mbc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미 직접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간 직접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6자회담이 여전히 좋은 방식이지만, 북한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다른 형태의 대화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반 총장의 오늘 언급은 미국 측이 6자회담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발언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반 총장은 이와 함께 북한 핵사태 해결을 위해 북한을 방문할 용의도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북신문 "이모작, 전역으로 확대 중"

-- 7월 30일 조선일보

북한이 식량난 극복을 위해 증산 투쟁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두벌농사(이모작)"는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낼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도"라며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입수된 민주조선 최근호(7.24)는 '우리 당의 두벌농사 방침의 정당성'이라는 글에서 산이 많고 경작지가 제한돼 있는 북한이 "현 시기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자면 부침땅(경작지)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두벌농사를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두벌농사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모작이 "논에서 뿐 아니라 밭에서도 진행되고 있으며 벌방(평야)지대에서만이 아니라 북부 고산지대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개성공단 억류직원 석방 임박 설

-- 7월 30일 경향신문

체제비난과 탈북책동 등의 혐의로 29일 현재 122일째 북한에 억류 중인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의 석방

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북 소식통은 이날 "남측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유씨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면서 대신 북측에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북측과 상당 부분 의견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협상 창구는 현대아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현대아산 서예택 관광경영본부장이 지난 1~3일 중국 단둥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유씨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아산 측은 "조개류 등 북한 수산물을 서해상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사업을 타진했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서 본부장을 통해 "만약 귀책사유가 있다면 사과 용의가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강경했던 정부 태도가 다소 누그러진 것도 유씨 문제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유보했던 민간 대북지원 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이르면 다음 주 쯤 재개할 예정이다. 지난 5월25일 북한 핵실험 이후 막았던 개성공단 이외 북한 지역으로의 민간인 방문을 단계적·선별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 여기자 석방 문제가 막바지 단계에 있는 것 같다. 유씨 문제도 비슷한 시기에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협상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가 한 때 틀어지는 등 진통을 겪었던 미국 여기자의 전례를 볼 때 유씨 석방 협상 역시 막판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北, 우리 측 선박 예인...남북관계 기상도?

-- 7월 30일 노컷뉴스

30일 오전 우리 측 선박 한 척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해 북 경비정에 의해 예인됨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남북 간 유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해당 선박과 선원이 수일 내 돌아온 바 있다.

우리 어선이 항로 착오 등으로 북한 해역으로 넘어간 최근 사례는 지난 2005년 4월 '황만호'와 2006년 12월 '우진호'. 당시 두 선박은 북한의 인도적 조치에 의해 3일과 18일 만에 각각 귀환했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북한 선원 6명이 15톤급 선박을 타고 강원도 고성군 근해에서 표류하다 군 당국에 의해 구조돼 송환됐다.

이런 사례로 미뤄볼 때 북한이 우리 측 선박에 대한 조사 이후 해당 선박을 돌려보낼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올해 들어 남북관계가 부쩍 냉각된 상황 속에서 북한이 해당 선박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들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현 정부 들어 유일한 남북 당국 간 대화 채널인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이달 초 개최된 이후 1개월이 지나도록 추

가회담 날짜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남북관계는 더 꼬일 수밖에 없다.

현대아산 유모씨가 4개월 넘게 억류돼 있는 가운데 북측이 이번 사건을 유씨 문제와 유사하게 처리하려 들 수 있고, 북한 입장에서선 또 하나의 대남 '카드'를 손에 쥐게 되는 셈이다.

특히 동해상은 서해와 달리 경계선이 상대적으로 분명해 북측이 우리 선박의 월선을 명백한 범법행위로 규정할 개연성도 높다.

그러나 반대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측이 해당 선박을 돌려보낼 경우 현재 냉각된 남북관계를 되돌릴 수 있는 '호재'로도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을 두고 북측의 상황조치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 전망이 맑을 수도 흐릴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 EU, 대북 인도적 지원 '계속'

-- 7월 30일 노컷뉴스

유럽연합(EU)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함께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나서기로 결정했으나, 북한에 인도적 지원사업은 계속하기로 했다.

유럽지원 협력기구의 에드리아나 로조바 아시아 지역 담당자는 29일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874호나 유럽연합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게 될 대북제재가 현재 유럽연합이 북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도적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다.

로조바 담당자는 "유럽연합에서 논의하고 있는 자체적 대북제재 조치에 인도적 지원과 개발을 목적으로 한 인도적 사업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지난달 채택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서도 제외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현재 평양에 상주하는 6개의 유럽의 비정부 기구들과 함께 북한에서 식량안보와 농업과 관련한 복구사업, 그리고 보건의료와 식수위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대북사업을 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모두 3천 500만 유로(약 4천 200만 달러)를 지원금으로 책정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올 한해 동안 보건의료와 식수위생 사업을 위해 약 300만 유로(약 400만 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 고립된 북한, 믿을 곳은 중국 뿐?...무역량 '급증'

-- 7월 30일 sbs

국제사회의 제재로 고립이 심화된 북한이 대중국 의존도를 높이면서 올 상반기 중국과의 무역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라오닝성 단둥 세관의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북한과 중국의 무역량은 71만 8천 톤

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무역액도 9,600만 달러를 기록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북한이 수출한 상품은 무연탄과 철강재가 대부분이었고,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상품은 기계류와 농산품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됐고, 중국의 원자재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해 무역량이 늘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 北 영화. 방송음악단 9월 베이징서 공연

-- 7월 30일 연합뉴스

북한 영화. 방송 음악단이 오는 9월 중국 베이징의 대표적 현대식 극장인 세기극원(世紀劇院)에서 공연한다고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경화시보(京華時報)가 30일 보도했다.

장명일 단장을 중심으로 40여명의 연주자들로 구성된 북한 영화. 방송 음악단은 9월 4, 5일 이틀간 세기극원 무대에 올라 이 음악단의 대표 창작곡인 '꽃 피는 처녀'와 '피바다' 등 북한 노래와 영화 삽입곡 등을 연주한다.

올해로 창립 51주년을 맞은 이 음악단은 영화문학창작사와 예술영화촬영소와 함께 북한 영화의 3대 축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영화와 드라마 음악 4만5천여 곡을 창작했다.

#### 北 첫 패스트푸드점, 지점 개설계획 밝혀

-- 7월 30일 연합뉴스

북한 최초의 패스트푸드점인 삼태성청량음료점이 평양 시민은 물론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어 조만간 분점을 낼 계획이라고 삼태성의 지배인이 30일 밝혔다.

삼태성의 고종옥 지배인은 이날 APTN과의 인터뷰에서 "가게를 연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우리 음식점은 시민들 및 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우리는 장차 (평양) 시내 여러 곳에 분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지배인은 또 "우리 음식점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음식을 전문으로 한다"면서 삼태성이 세계 유수의 패스트푸드점과 다른 없는 곳을 강조했다.

삼태성을 찾은 영국인 관광객 조지 바텀리는 APTN과의 인터뷰에서 "이곳은 매우 깨끗하며, 직원들도 음식을 서비스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남북협력사업자 北왕래 쉬워진다" ..개정법 31일 발효

-- 7월 30일 파이낸셜뉴스

남북협력 사업자는 31일부터 통일부 장관에게 최장 1년의 수시 방문기간을 보장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별도의 방문 승인을 받지 않아도 북한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에 참석해 북한 주민을 접촉하거나 남북 당국 간 합의에 따라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해 남한을 방문한 북한 주민을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통일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



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31일자로 발효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울러 개성공단 등 특구 지역 안에서 이뤄지는 총 투자금액 50만 달러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 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행정조사제도'를 도입해 협력 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해 통일부 장관은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시정을 명하도록 했다.

#### 北, '광물수출' 단천항 현대화에 박차

-- 7월 30일 조선일보

북한은 29일 지하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함경남도 단천지구의 단천항을 “현대적 무역항”으로 개발하기 위한 궤기모임을 갖는 등 단천항 개발에 본격 나섰다.

단천은 연, 아연 생산기지인 검덕광업연합기업소가 있는 광산지구로, 단천항 현대화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북한의 평양방송이 30일 보도했다.

29일 현지에서 열린 궤기모임엔 장관급인 라동희 육해군상이 참석해 북한 당국의 의지를 반영했다.

궤기모임 토론회에선 “단천지구에 현대적인 무역항을 건설하는 것은 해상운수 발전의 물질 경제적 밑천을 마련하고 대외무역을 발전시켜 경제 강국 건설을 다그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다.

북한은 90년대 후반부터 단천항 개발에 관심을 보여왔지만 실제 개발사업은 지지부진했다.

지난 2007년 북한에 제공한 경공업 원자재의 대가로 광물을 들여오기 위해 단천시를 방문했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박흥렬 회장은 “단천항은 광산지역과 가까워 제대로 개보수가 이뤄진다면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나 “단천항은 모래가 많고 수심이 얕아 광물을 선적할 큰 배가 정박하기 어렵다”며 “항만시설도 낙후돼 수출항으로 정상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8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에 대해 북한의 경제학자가 “조선의 유일한 외화벌이 수단이 무기 판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라며 “예컨대 우리가 고품질의 광물성 생산품을 내놓을 수 있는데 세계의 모든 자본가들이 미국의 지령대로만 앉아있는 것을”이라고 말했다고 전해 광물자원 수출에 대한 북한의 관심을 보여줬다.

#### 메노나이트 중앙위, 북한에 1백만 달러 농업 지원

-- 7월 31일 노컷뉴스

기독교 계통의 민간 구호단체인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가 북한에서 1백만 달러 상당의 농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Mennonite Central committee)는 황해도 지역 3개 협동

농장에 2011년 12월까지 1백만 달러를 들여, 비료 대신 논밭에 작물 그루터기를 남겨 분해시키는 방법으로 토양의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보존농업(conservation agriculture)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는 “비료와 연료 등이 부족한 북한에서는 요소 투입을 많이 요하지 않는 보존농법이 매우 적합하다”면서 “황해북도 사리원시와 황주군, 황해남도 봉천군에 소재한 3 개의 협동농장에 농업기기를 공급하고 기술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사전조사를 위해 현지 농장을 방문했던 이 단체의 제임스 프레이 사업조정 담당자는 “현재 논밭 전체를 경운 하지 않고 종자를 심을 부분만 구멍을 내고 다시 흙을 덮는(복토) 기계인 무경운파종기를 제공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美, 北조선혁신무역회사 추가 금융제재 결정

-- 7월 31일 노컷뉴스

미국 정부가 30일(현지시간) 대량살상무기 거래 의혹을 받아온 북한 기업 한 곳을 추가로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조선혁신무역회사(Korea Hyoksin Trading Corporation)'를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 자산동결을 담은 행정명령 13382호에 의거해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2005년 부시 행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령 13382호는 핵관련 의혹을 받는 기업에 대해 자산동결과 함께 미국내 개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선혁신무역회사의 해외자산은 모두 동결되며, 미국의 금융과 거래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다.

조선혁신무역회사는 지난 16일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의해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 따라 모기업인 '조선령봉종합회사'와 함께 대량살상무기 관련 제재대상 기업으로 지정된 바 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30일 북한무역회사인 남촌강(NCG)에 대해 우라늄 농축 장비구매에 관여한 혐의로 미국 내 자산동결 조치와 함께 미국 기업, 개인들과의 금융거래를 금지했다.

#### 월드비전, 北핵실험후 민간 첫 방북

-- 7월 31일 파이낸셜뉴스

대북지원 민간단체인 월드비전의 방북이 31일 최종 승인됐다.

지난 5월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개인 및 민간단체로서 북한을 방문하는 첫 사례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이날 서울 도림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모니터링을 위한 방북을 승인했다”면서 “월드비전은 8월1일부터 8일까지 평양 농업과학원, 양강도 대흥단군, 평안남도 중화군을 방문해 씨감자(감자종자), 과수사업장 현장 모니터

링, 기술전수 및 향후 사업계획 협의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이번 방북 승인은 '인도적인 차원의 대북지원은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에 따른 것"이라면서 "민간단체들의 방북 목적 등 사업과 관련한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전체적으로 (민간단체의 방북을)다 허용한다기보다 그런 기준을 토대로 당분간은 선별적으로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도 남한 은행계좌 개설 허용

-- 8월 1일 서울신문

앞으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남한에 은행 계좌를 열 수 있게 된다. 북한 기업에 국내 은행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최초의 정부 조치다. 지금까지는 개성공단 내 기업들은 북한 국적이어서 국내 은행 이용이 불가능했다.

기획재정부는 개성공단 투자 기업 지원을 위해 '대북 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을 개정해 31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에 대해 대부(貸付)투자를 할 경우 투자자가 현지법인 명의의 '비거주자 원화 계정'을 국내에 개설,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개성공단 투자는 대부분 지분투자자와 대부투자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 <오후여담>북한 휴대전화

-- 8월 1일 문화일보

2002년, 남한의 휴대전화 기술이 북한에 도입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다.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해 6월4일, 변재일 정보통신부 기획관리실장 일행은 평양을 방문했다. 북한 관계자들과 공식회담을 하기 위해서였다. 남북관계가 화해무드와 함께 북한이 남한의 코드분할다중접속(CDMA)기술 채택을 적극 검토, 이들을 초청한 것이다. 협상결과 역시 속전속결. 양측은 CDMA 및 국제전화관문국 고도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2차 협의를 1개월 이내에 평양 또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갖기로 했다.

북한의 CDMA 및 국제전화관문국 고도화 사업은 평양과 남포 일원에서 남북한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되며, 남한측에서는 KT와 SK텔레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시스콤 등이 참여한다는 안까지 검토됐다. 당시 북한은 연말 안에 우선 평양 일원에 서비스할 계획이었다. 이미 그 전부터 SK텔레콤 등 민간 차원의 물밑 교섭도 이뤄졌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같은 남북 통신협력은 얼마안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미국이 CDMA 휴대전화의 핵심 칩이 미국의 쉘컴 것임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전략물자의 경우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쉘컴 칩이 전략물자라는 것이다. 결국 이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지난 29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북한 휴대전화 가입자가 약 4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15일 이집트의 이동통신회사 오라스콤이 서비스를 시작한 지 6개월 남짓 만에 달성한 수치다. 오라스콤이 75%, 북한이 25%를 투자해 설립한 이동통신사 '고려링크'는 가입자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서비스 지역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오라스콤은 현재 북한에 114개 휴대전화 기지국과 1개 이동전화 교환국을 설치했으며, 평양 시내 2곳의 고려링크 봉사소가 신규 가입자 접수와 휴대전화 개통, 선불통화카드 판매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체신회사 3곳에서도 선불통화카드를 판매하고 있다 한다. 북한 내 외국인들의 요구에 따라 인터넷용 고속패킷접속(HSPA) 서비스도 곧 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남한의 CDMA기술이 북한에 도입됐다면 지금 어떤 상황일까.

#### 북한, 기초식품 공급업무 전산화

-- 8월 1일 노컷뉴스

북한의 상점 경영에 경영관리프로그램이 도입되는 등 기초식품 공급업무가 전산화 됐다고 조선신보가 전했다.

조종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일 "평양시 모란봉구역 북새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봉사하고 있는 칠성문 식료품상점은 종전에는 주민공급대장에 세대수와 세대별 연간 공급량과 공급가격, 공급날짜 등을 기록했으나, 지난 4월15일부터 기초식품 공급업무가 컴퓨터화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시기에는 판매원들이 기초식품탱크에서 공급량을 저울로 달아 공급하고, 주민공급대장을 들추며 통계를 내고 공급받지 못한 세대를 찾았지만, 이제는 간장, 된장, 기름, 닭알, 고기 등 식품들을 자동저울로 주민들에게 신속 정확히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양시 북새동의 주민인 김신옥(62) 씨는 "봉사자들만이 아니라 주민들도 국가로부터 받은 기초식품의 양을 알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컴퓨터에 의한 기초식품 자동봉사는 전국의 모든 식료품상점에 도입되고 있으며, 지난 7월 14, 15일 평양에서 상업부문 일군 회의에서 이에 관한 기술강습이 있었다고 조선신보는 덧붙였다.

#### 평양화장품, 한방 함유 주름방지 제품 출시

-- 8월 1일 노컷뉴스

평양화장품공장에서 피부세포를 보호하고 피부의 탄성을 보장해주는 한방이 함유된 화장품을 출시했다고 조선신보가 전했다.

조선신보는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새로 만든 화장품은 나노금, 셀렌, 핵산, 이소플라본, 비타민E, 인삼, 당귀 등이 함유된 살결물(로션)과 크림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의 노화촉진을 막고 세포의 영양상태를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소개했다.

또 "깊이 패인 잔주름을 제거하고 피부의 영양상태를

보존해주는 이 화장품은 평양시와 전국의 각 상업망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北, 개성통행자 개별서류 제출의무 면제

-- 8월 2일 조선일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대체로 규제를 강화해온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우리 측 통행자들의 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은 자기측 통행 검사소에서 남측 차량 운전자가 하게 돼 있는 이른 바 '사진 명단'과 통행계획 제출 의무를 3일부터 없애기로 남측과 합의했다. 대신 우리 측 공단 관리기관인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당일 출입자의 사진명단과 통행계획을 일괄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개성공단 방문 차량 운전자들은 방북할 때 탑승자 사진과 인적사항이 들어 있는 '사진명단'과 통행계획을 북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출발 당일 아침 도라산 출입사무소로 직행하지 못하고 회사에 들러 사진명단 등을 받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사전에 남북이 군통신선을 통해 방북자 출입계획 제출 및 승인업무를 하고 출입자 개개인이 방북때 출입증 또는 체류증을 소지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가져가는 사진명단 등은 '이중규제' 성격이 강했던 것이다.

결국 기업들의 이런 '민원'을 접수한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북측 출입관리당국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지난달 말 북측으로부터 사진명단 등의 제출의무를 면제한다는데 동의를 받았다고 관리위 관계자는 전했다.

북측의 이번 조치는 북한 체제의 경직성과 작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육로통행 시간대 및 통행인원 축소, 반입 금지품 심사 강화 등 개성공단과 관련해 북측이 취해온 일련의 '규제강화' 조치들을 감안할 때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Mobile Phone Users in North Korea Increasing 북한의 휴대폰 사용자 증가

-- 7월 29일 Korea Times

출처[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09/07/116\\_49290.html](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09/07/116_49290.html)

The number of people using a mobile phone service provided by Egypt-based mobile operator Orascom Telecom in North Korea is increasing, according to a report on Wednesday.

Since the company began the service on Dec. 15 last year, 48,000 North Koreans subscribed to the service as of late June, the Voice of America reported.

The Egyptian group is the first foreign firm to be granted a license to provide mobile service in North Korea.

The operator plans to expand its service area from Pyongyang to other areas this year, the report said.

The company also said it will soon begin the High Speed Packet Access (HSPA) service at the request of foreigners who want to use wireless Internet in North Korea.

It currently has 114 base stations and one mobile phone exchange office in the communist state.

북한에서 휴대전화(손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 6월 말 현재 가입자 수가 4만 8천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중동 지역 최대 이동통신 회사인 이집트의 오라스콤은 최근 발표한 자료를 통해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계속 늘어나 지난 6월 말 현재 4만8천 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집트 그룹은 북한에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격을 얻은 첫 번째 외국 기업이다.

평양에서 다른 지역으로 올해 자사의 서비스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라스콤은 "고속 무선인터넷 접속을 필요로 하는 북한 내 외국인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인터넷용 고속 패킷 접속(HSPA) 서비스가 곧 개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라스콤은 "현재 북한에 114개 휴대전화 기지국(BTS)과 1곳의 이동전화 교환국(Switches)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UN chief concerned over DPRK decision to leave six-party talks 유엔 사무총장이 6자회담에 불참하겠다는 북한의 결정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 7월 31일 Xinhua

출처[http://news.xinhuanet.com/english/2009-07/30/content\\_11803917.htm](http://news.xinhuanet.com/english/2009-07/30/content_11803917.htm)

Speaking at a UN headquarter press conference Wednesday,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said he is dismayed over the recent deci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o walk away from the six-party talks.

At his monthly press briefing, Ban sai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not accept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he voiced his support for a possible direct engagement between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Soundbite: Ban Ki-moon, UN Secretary-general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not accept nuclear weapons in DPRK, that message has been clearly sent. While I believe that the six-party talks provide a good way for a solution through dialogue, if necessary, there should be some other forms of dialogue, and I am encouraged by the willingness of DPRK authorities to engage in direct dialogue with the United States."

Earlier this month, the DPRK said it was walking away from the six-party talks for good, but signaled it was willing to speak with the United States one-on-one.

However, the five other countries think the six-party talks is the best platform to address

North Korea's nuclear issues.

수요일,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자 회견 연설에서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은 최근 6자회담에 불참하겠다는 북한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

그의 매월 정례 브리핑에서 반 장관은 국제 사회가 한반도에 핵무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과 미국사이의 직접대화 가능성에 대해 지지의 뜻을 보였다.

반기문장관은 연설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냈다. 나는 6자회담이 대화를 통한 해결에 좋은 방법을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만, 다른 형태의 대화가 필요하다면 북한과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지지한다.

그러나 다른 5개국은 6자회담이 북한핵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형태라 생각한다.

露外交官「北朝鮮の『対話したい』は積極的なシグナル」러 외교관 “북한의 ‘대화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시그널”

-- 7월 28일 서치차이나

ロシアのタス通信が27日、匿名のロシア外交官の話を引用して、「北朝鮮が発表した核問題について対話するつもりがあるとのした言論について、我々は『積極的なシグナル』だと見ている」と伝えた。

タス通信はこの外交官の話を引用し、「これは北朝鮮が柔軟な政策を採る兆しであり、正しい方向に向けて進むことを意味している。北朝鮮側は話し合いが唯一の選択であることをだんだん意識するようになったのだろう。ロシアは6ヶ国協議を最善のやり方だと主張しているが、二国間交渉を含むほかのやり方で北朝鮮の核問題を解決することもありうる」としている。

北朝鮮外務省の報道官は27日ピョンヤンで、「朝鮮は6ヶ国協議にもう参加しない。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は、他の話し合いのやり方もあるだろう」と述べたが、具体的なことは何も示していない。(情報提供：中国国際放送局)

러시아의 타스 통신이 27일 익명의 러시아 외교관 이야기를 인용하며 “북한이 핵문제에서 대화할 생각이 있다

고 한 언론 발표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인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타스 통신은 이 외교관의 이야기를 인용, “이것은 북한이 유연한 정책을 채택하려는 조짐이며,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북한 측은 대화가 유일한 선택임을 점점 의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러시아는 6자회담을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양국 간 교섭 등의 방식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북한 외무성의 보도관은 27일 평양에서 “조선은 6자회담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화의 방식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무 것도 제시하지 않았다.

総連施設の課税継続を要請 救う会埼玉 조총련시설에 대한 과세 계속을 요청, 구하는 사이타마 모임

-- 7월 29일 산케이신문

拉致被害者の支援組織「北朝鮮に拉致された日本人を救出する埼玉の会」(救う会埼玉)は28日、さいたま市の清水勇人市長に、市内の在日朝鮮人総連合会(朝鮮総連)施設への課税継続などを求める要請書を提出した。

救う会埼玉によると、浦和区に朝鮮総連の県本部があり、平成18年に固定資産税などの免税措置が撤回されている。救う会埼玉は、課税継続のほか拉致問題を考える集会への協力などを要請。清水市長は報道陣に、「課税は継続してやっていく」などと話した。

납치피해자 지원조직 『북조선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는 사이타마의 모임』(구하는 사이타마 모임)은 28일 사이타마시 시미즈 하야토 시장에게 시내 조총련 시설에 대한 과세 계속 등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구하는 사이타마 모임에 의하면 우라와구에 조총련 현 본부가 있고, 평성 18년(2006년)에 고정자산세 등의 면세 조치가 철회되었다. 구하는 사이타마 모임은 과세 계속 외에 납치문제를 생각하는 집회에 대한 협력 등을 요청. 시미즈 시장은 ‘과세는 계속해 나갈 것’ 등을 약속했다.

## 함께 보는 최근 북한 단신

### 北, 평양서 리듬체조 국제심판 강습

○ 북한 평양에서 최근 '제12주기 국제 예술체조(리듬체조) 심판원 강습'이 열렸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8일 전했다. 청춘거리 탁구 경기관에서 5일 동안 진행된 강습에는 "관계부문 일꾼들과 평양 시내 체육단 감독들, 전문가들이 참가"했으며 국제체조연맹의 예술체조 1급 심판원인 타마라 보파(캐나다)가 이론과 실기로 나눠 강습을 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 평양 수영장도 인파가득

○ 북한은 매년 7~8월을 '해양체육월간'으로 정하고 주민들에게 수영을 즐기도록 권장하고 있다. 북한의 언론매체들도 여러 가지 수영훈련을 전하고 있다. 조선중앙 TV는 평양의 청춘 거리 수영경기관에 하루 평균 500명이 넘는 평양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 추천 논문

## 북·중간 광물성생산물 무역과 북한의 선군경제건설론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이례적으로 금속공업을 강조했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의 연말연초 행보도 이에 부합했다. 2008년 말 '역사의 땅 강선'을 찾은 것을 필두로 연초 김책제철연합기업소,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등 금속공업부문과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와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등 공작기계부문에 대한 현지지도가 집중됐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금속공업을 강조하고 나섰을까? 해답은 북한식 '선군경제건설론'의 이론적 체계와 2002년의 7·1조치 및 그 후, 특히 대중 무역에서 급증하기 시작한 광물성생산물 무역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7·1조치 이후 북한의 광물성생산물 무역에 중국의 비중은, 수입은 2002년부터, 수출은 2004년부터 급증세를 보인다.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2004년부터 매년 74.18%, 84.47%, 92.05%, 97.69%의 폭발적인 증가세이다. 수입에서도 2007년 83.01%를 차지하여 중국은 북한의 전체 광물성생산물 무역에서 89.11%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급증은 화폐 단위로 표현되는 현상이지 물량, 자체가 급증한 것은 아니다. 즉, 광물성생산물 무역의 급증세는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에 영향을 받은 탓이 크지 절대적인 물량 증가는 이에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수입단가가 급증했는데도 일정 물량은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강화된 선군경제건설론의 중핵은 금속공업에 중점을 두는 중공업우선론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정립한 선군시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전략적 노선의 골자는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방공업과 중공업, 국방공업과 경공업 및 농업을 연결하는 매개가 바로 금속공업이라는 뜻이다.

북한이 이처럼 금속공업을 전면에 내세운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시장통제의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7·1조치 이후 시장경제는 계획경제를 잠식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계획경제를 상징하는 세출액은 답보상태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시장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대안으로 금속공업으로 대표되는 국방산업과 중공업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량살상무기 집착에 따른 대비책이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에 집착할수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북한은 이에 대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결국 국제사회와 새로운 접점을 찾을 때까지 필요자원을 사전에 확보하거나 자력갱생으로 난국을 타개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런 북한의 정책의도가 효력이 있으려면 다음의 세 가지 점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자원의 우선적 배분이다. 북한은 이 문제를 수출을 국내로 돌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듯하다.

둘째, 금속공업에 필요한 철광석과 석탄, 전력 등 중요자원의 자체조달 문제이다. 북한은 이 문제를 중국의 투자로 절대 생산을 늘림으로써 해결하는 듯하다.

셋째, 콕스탄 등 중요 수입물자의 수입문제이다. 국제원자재가격이 급등했지만 일정 물량의 수입은 지속되는 것은 이 또한 결정적인 문제는 아닌 듯하다.

결국 비록 낮은 단계이지만 북한이 금속공업을 돌릴 수 있는 여건이 존재하며, 그 토양은 중국의 대북투자과 북한 자원에 대한 중국의 수요 급증에 있다. 또 이것은 경제적 자원을 획득하는 북한의 대외적 능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중국이 대북경제제재에 소극적인 한 한국의 제재나 이에 따른 남북교역의 감소는 북중교역의 증대와 북한의 대중 의존도 강화로 귀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글의 원문은 <http://www.koreaexim.go.kr/kr/sn/m04/s01.jsp>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퀴즈로 풀어나가는 北!

함경북도에는 지질구성이 다양해서 석회석, 고령토, 인회석, 운모, 니켈, 흑연 등 많은 종류의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철과 석탄이 풍부한데요. 석탄은 현재 화포, 고참 등 수많은 탄광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철은 매장량 10억톤에 연간 생산능력이 800만톤에 달하는 철광산이 함경북도에 있다고 합니다.

◆ 북한 최대의 철 생산지이자 세계적인 노천광산인 이 철광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 주간 북한경제 동향 제 51호, 연속 기획 『북녘산책』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함께 성함, 주소, 휴대폰 번호를 [purple0414@krlove.net](mailto:purple0414@krlove.net) 으로 8월 9일 일요일 까지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히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세계 최초로 ISO 22000 국제인증 받은 『신일염전』에서 생산한 명품소금, 『513 천일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겨레사랑 홈페이지 [www.krlove.net](http://www.krlove.net) 에서 팝업창을 확인해 주세요.